



***Park Kwang Soo***

어제  
오늘... 미래

오늘은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있지 않는가?  
내일은 오늘이 존재하기에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음에.

찰라된 순간을  
연속해 나간다.

과거를 동경하고  
향수에 젖는다면  
집착에 그들린다

집착하지 않고 참 나를 찾아가는  
생을 행하는 그 무엇을 찾아 나선다..

땅의 소리 울부짖음 속에 순화되는  
새로운 새싹들과 성장하고  
잉태하는 종속본능의 열매를 낳고

그것을 인간들의 먹거리로 환생, 순환, 윤회,  
모습들을 파인더에 담고 싶다  
꿈틀대며 드러낸 자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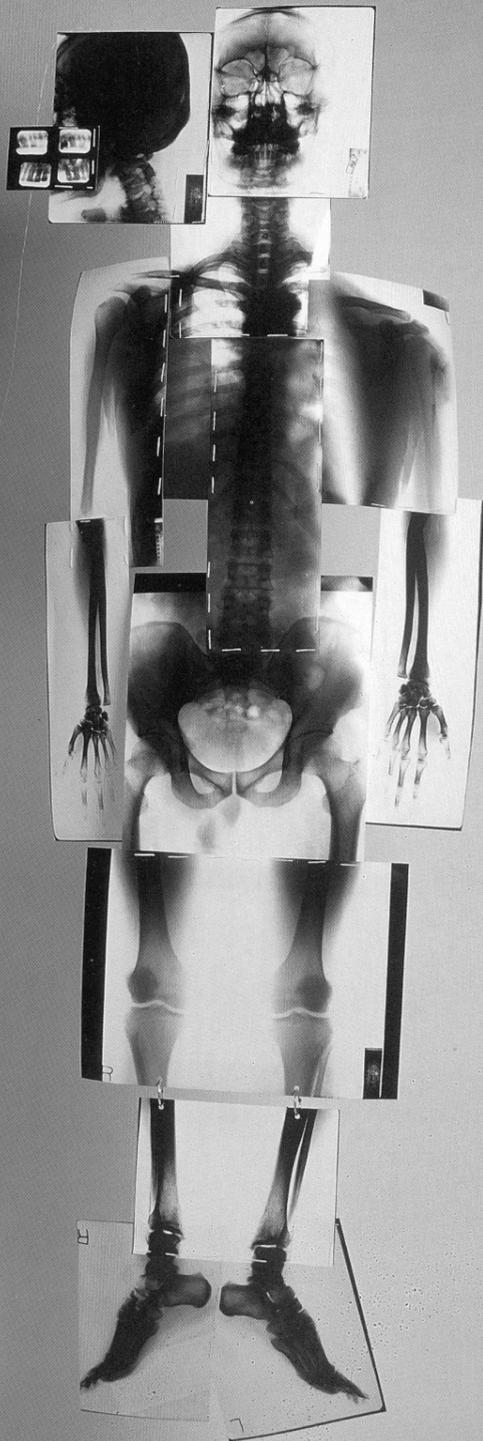
그 모습을  
그러내는 것이 나의 사진 작업이다











적근 적어, 밝은 밝어, 나는 물이다, 한리야 물은 내가  
생겼어 너야 물은 강스생각-



## 빛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

국민학교 시절로 돌아간다.

그림을 그리다 말고 울은 적이 있다.

그림이 잘 되지 않아

이유인즉

선생님이 늘씬하고 이쁘는데

이쁘게 그리지 못하는데 이유가……

어린 시절 자주 상을 받곤 했다

상을 자주 타면서 우쭐하는 마음이 돌아난 것 같다

착각 속에 자부심을 가지며 성장을…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하지 않아요.

고교 시절 예비고사가 끝나고

반 친구들과 고교 추억 쌓기 하자는데

마침 집에 야시카 카메라가 있어 사진을 찍기 시작한게

카메라와 인연이 시작되었고 어렵지 않게 구도를 잡고

찬스를 잡는 소질 있다고 추켜세운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대학에 와서 흑백사진에 빠져들어

환갑이 지나 칠순을 바라보는데 좀처럼 두려움 없이 다시 잡게 되었다

제2의 도약을 늙은이로서 치매 예방도 되고 예술가의 기질을 발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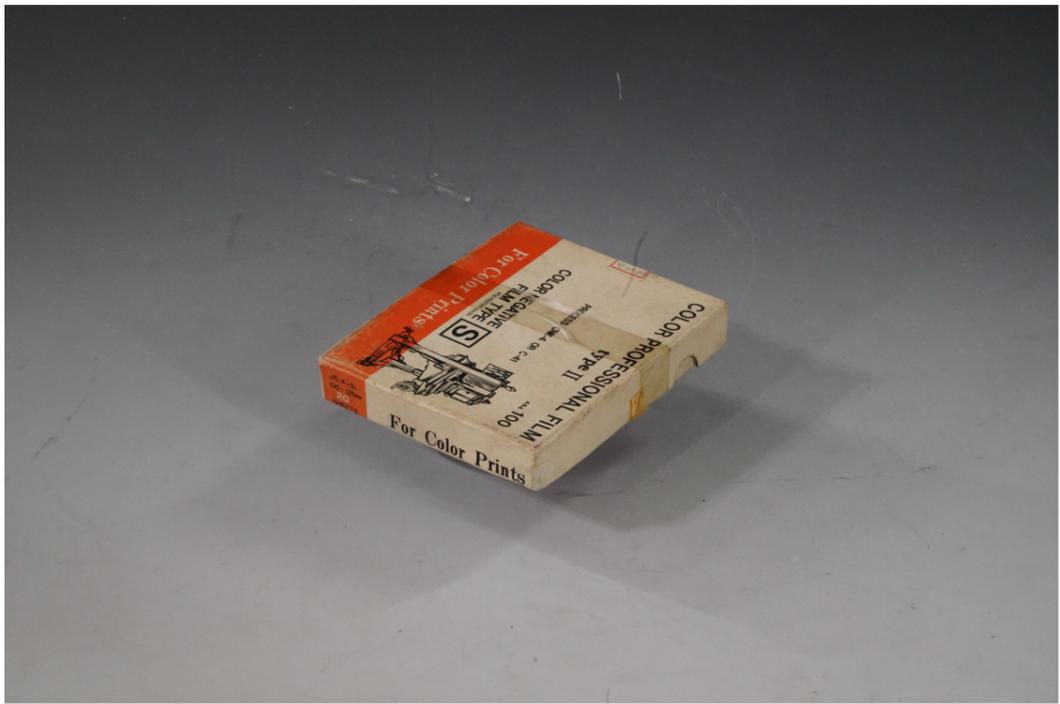
창작의 삶을 향유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작품의 성장도 사진에 담을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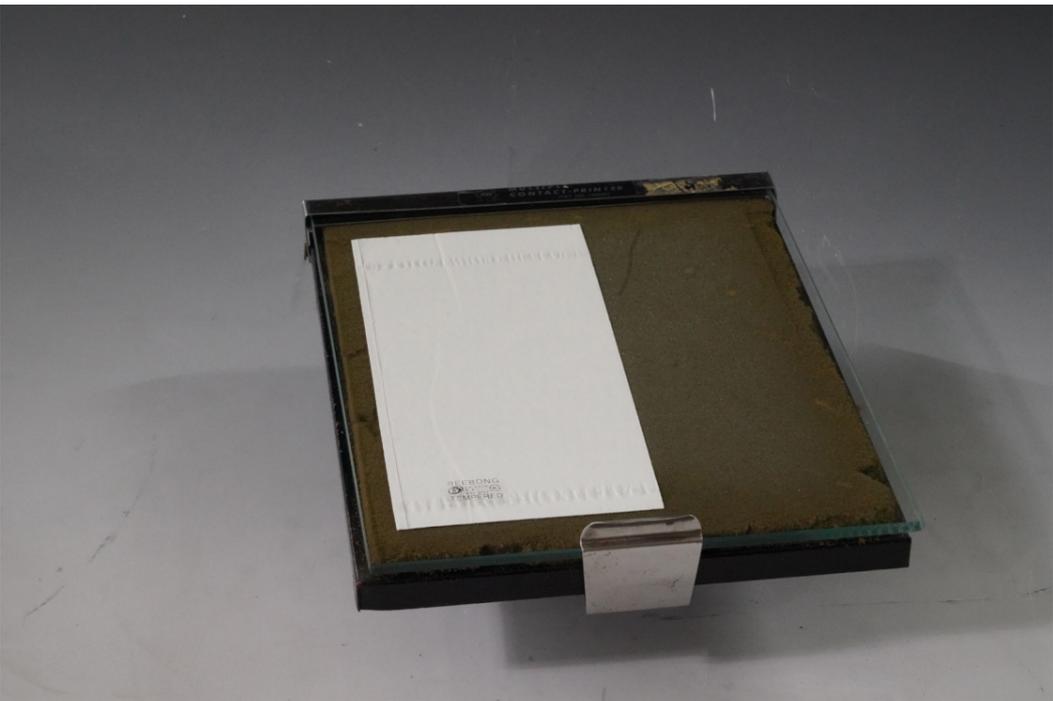
으니 이 또한 기쁨이 아닌가 하며 작가 노트를 써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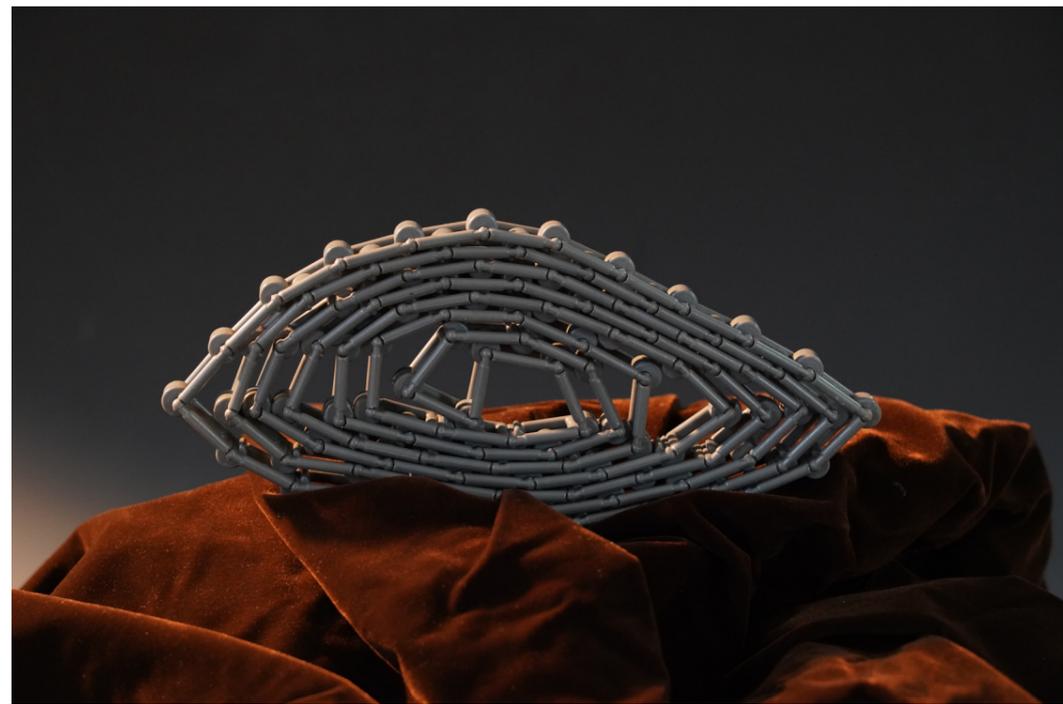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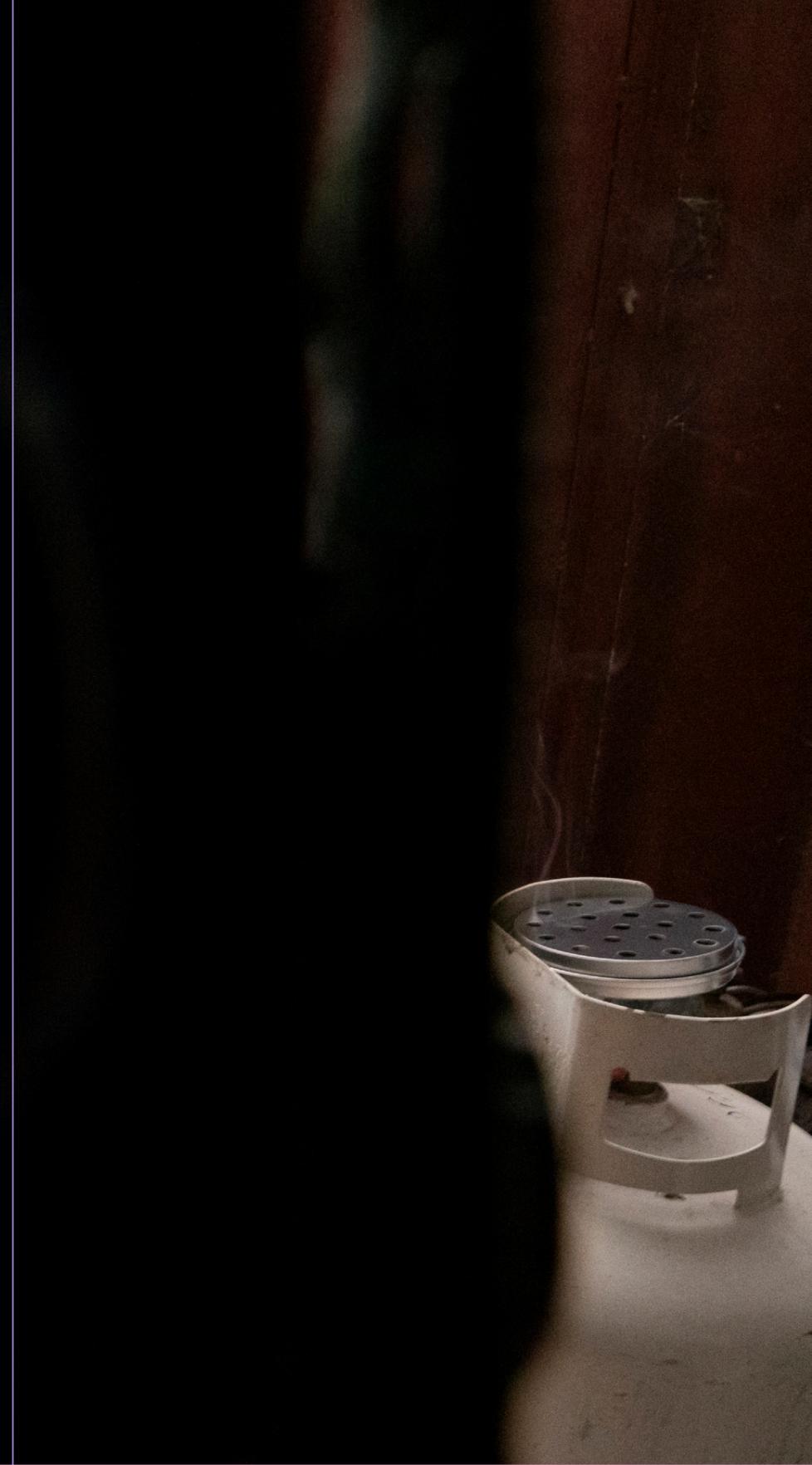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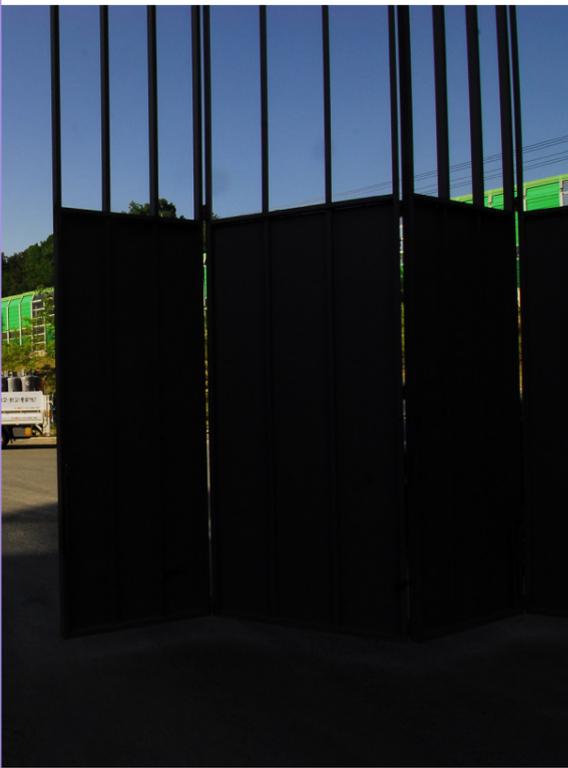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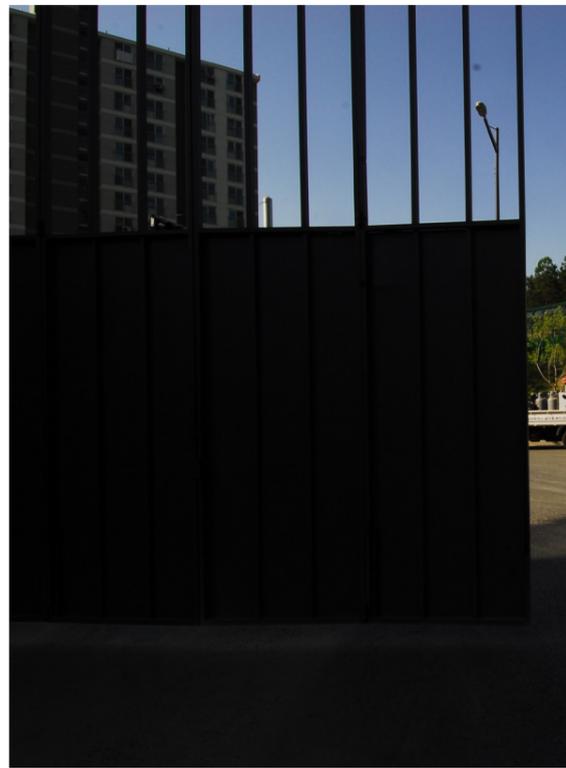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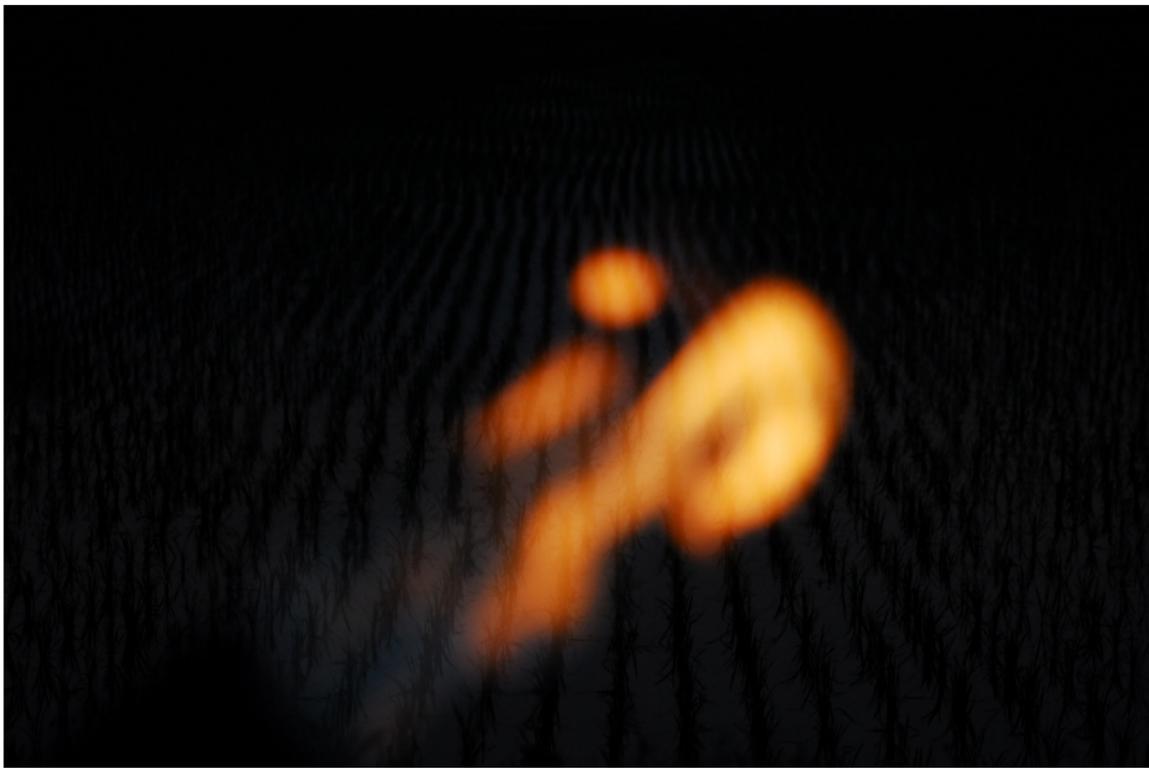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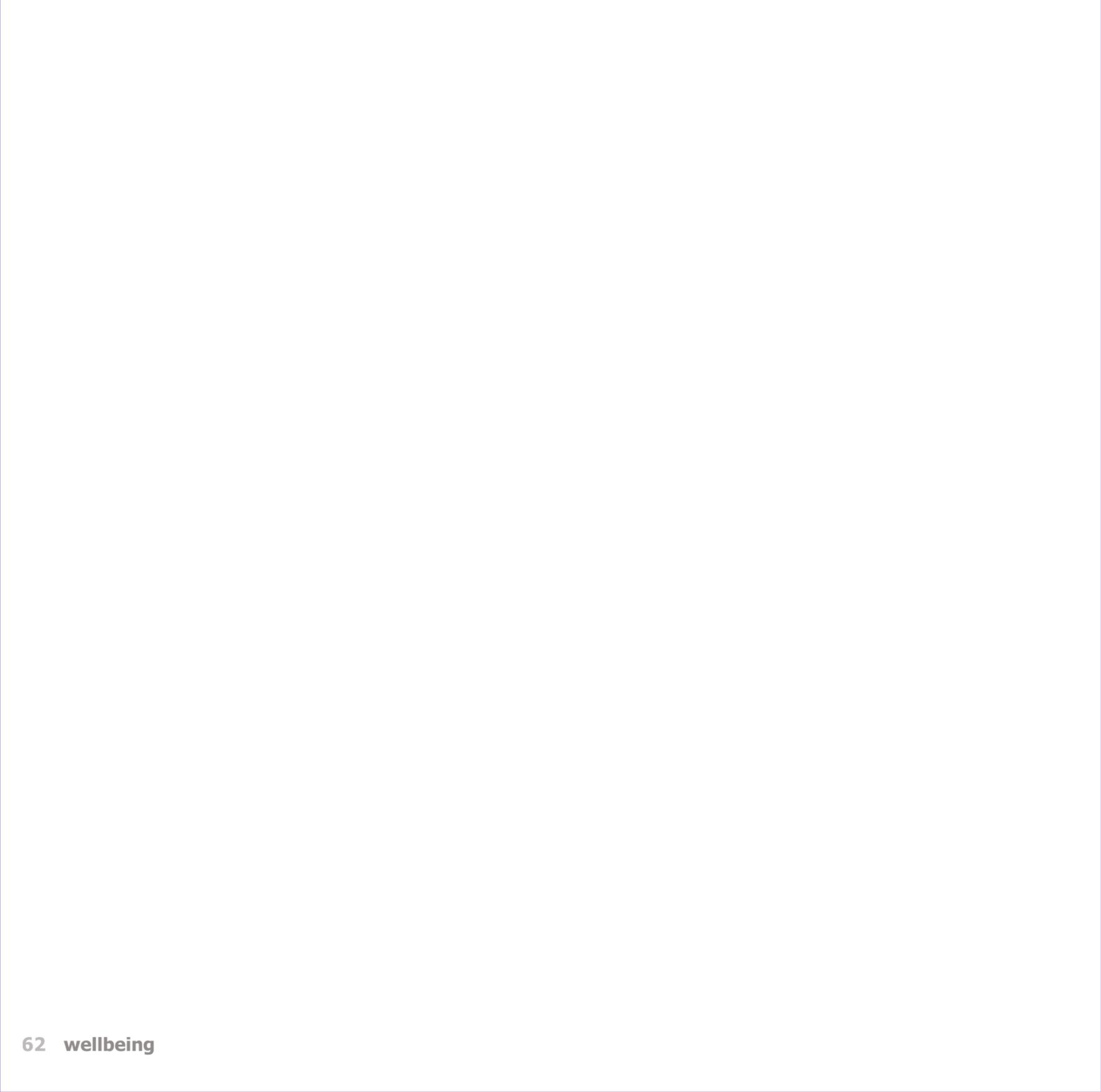
















## 배꼽 이야기

헤아려 알 수 없는 신이라 한다

이혈은 태아 때에 탯줄을 통해 선천의 신기를 받은 문호이고

그 변화를 헤아려 알 수 없으므로 신궤이라 이름하였다

문헌에서 발취

배꼽 이야기

이처럼 배꼽은 생명선이다

모든 양분과 유전자를 넣어줌으로써 한 생명이 잉태 되는 것 신비롭고

순수한 정기를 영상으로 표현하는데

그만이다 배꼽에 침도 금기인 것도 알게됨

들숨 날숨

들이마시면 내뱉을 줄 알아야 한다

먹으면 싸고

가장 순수한 진리다

한편으로 동·식물을 관찰하면서 과일이나 식물에서도 배꼽을 찾아냈다

이번 경우에는 토마토를 재배해서 사진 찍고 토마토 쥬스도 만들고

1년씩 말린 사과 등등

고추도 풀이고 배추도 풀이다

“일본인이 좋아하는 녹색정원 정서적으로도 좋은 풀색”

작물을 키우면서 자연과 친화적인 면면을 볼 수 있다.

즉 작물을 예술인이 키운다면 이것을 설치예술이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다

먹거리도 충족시키고 재미난 작업도 만들고

이것을 일거양득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재미난 작업을 하고 싶다

즉 회피식물을 키워 벌레 없는 야채를 만들어 보려한다

가령 채소밭 울타리에 코스머스를 심고 오줌이 좋은 걸음이다

결국은 나의 피

소독용 크레졸은 냄새나도 벌레가 접근을 못한다

자연이 가르쳐준 진실

흙에 진실

벌레가 인간을 볼 때 징그러운 놈 징한놈 이라 칭할걸

숙갓 은행 앞 고수 등등 사이 사이 뿌려고 키워가며 친화적으로 치유되는

그림 찾아 나설 때 찬사를 보내주세요

제주도 명월국민학교옆 숲에서 임양환 교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자연도 서로서로 지켜주며 침범하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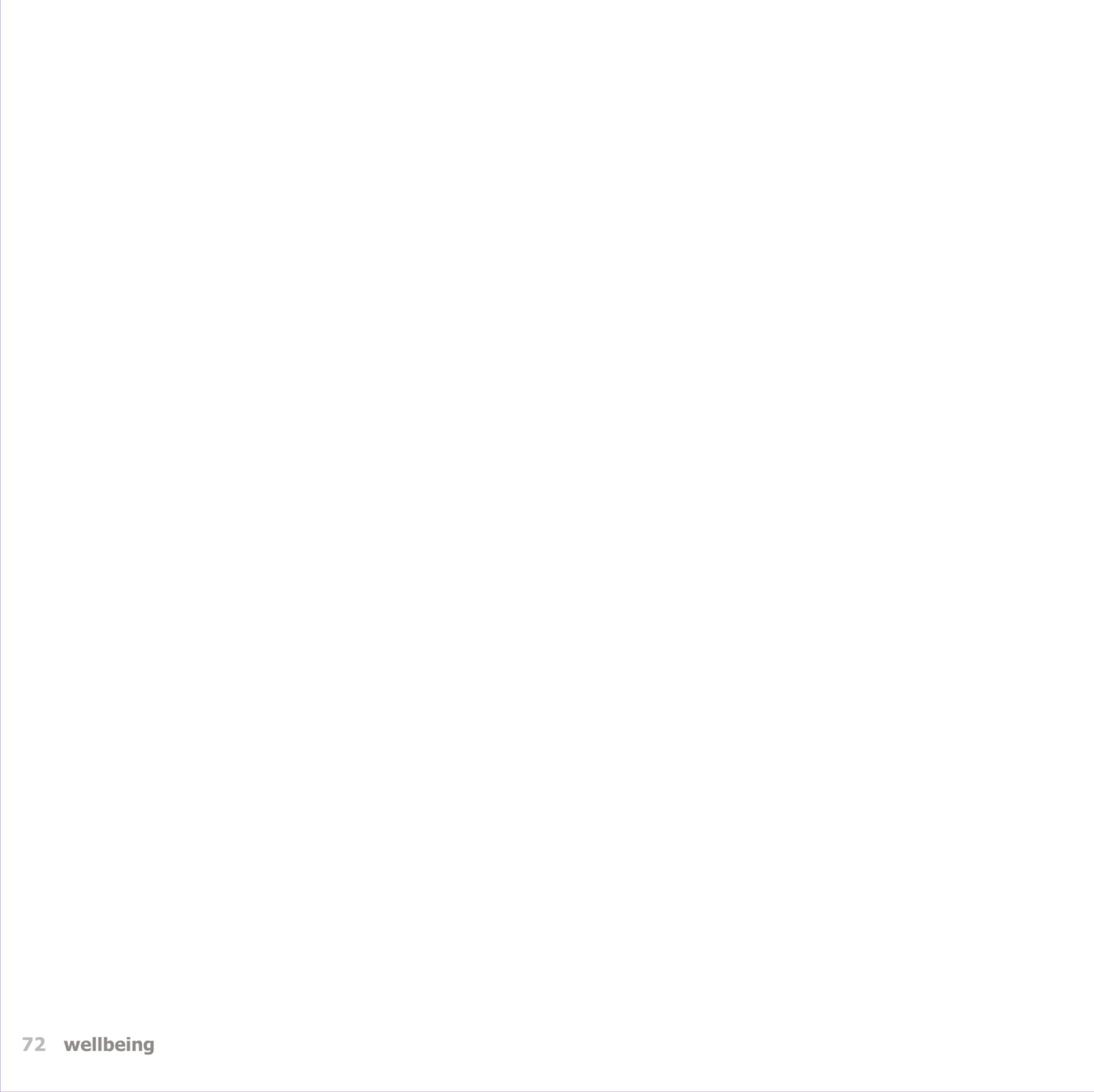
나무와 나무와의 경계 !

사람도 적당한 경계!

경계!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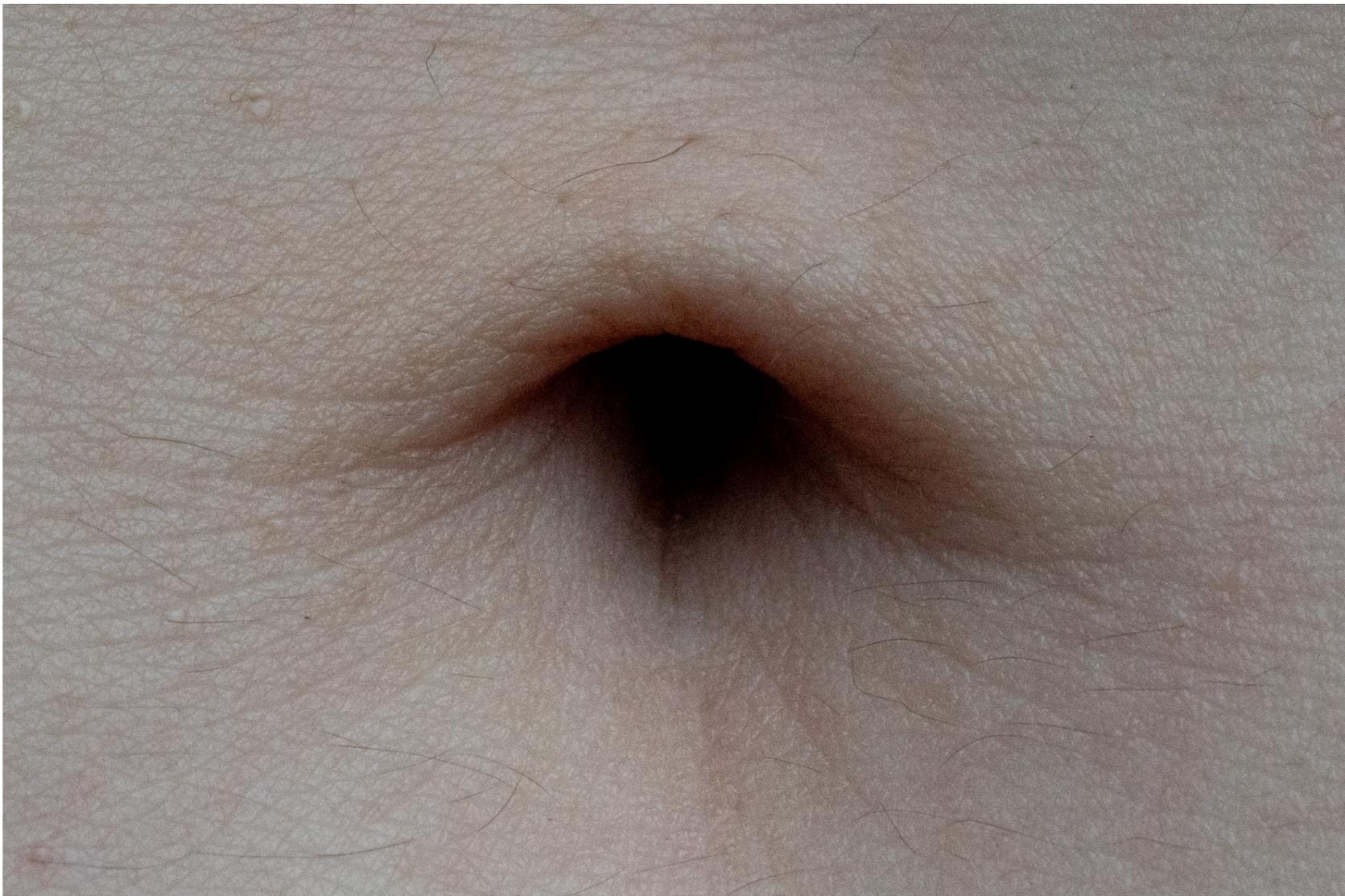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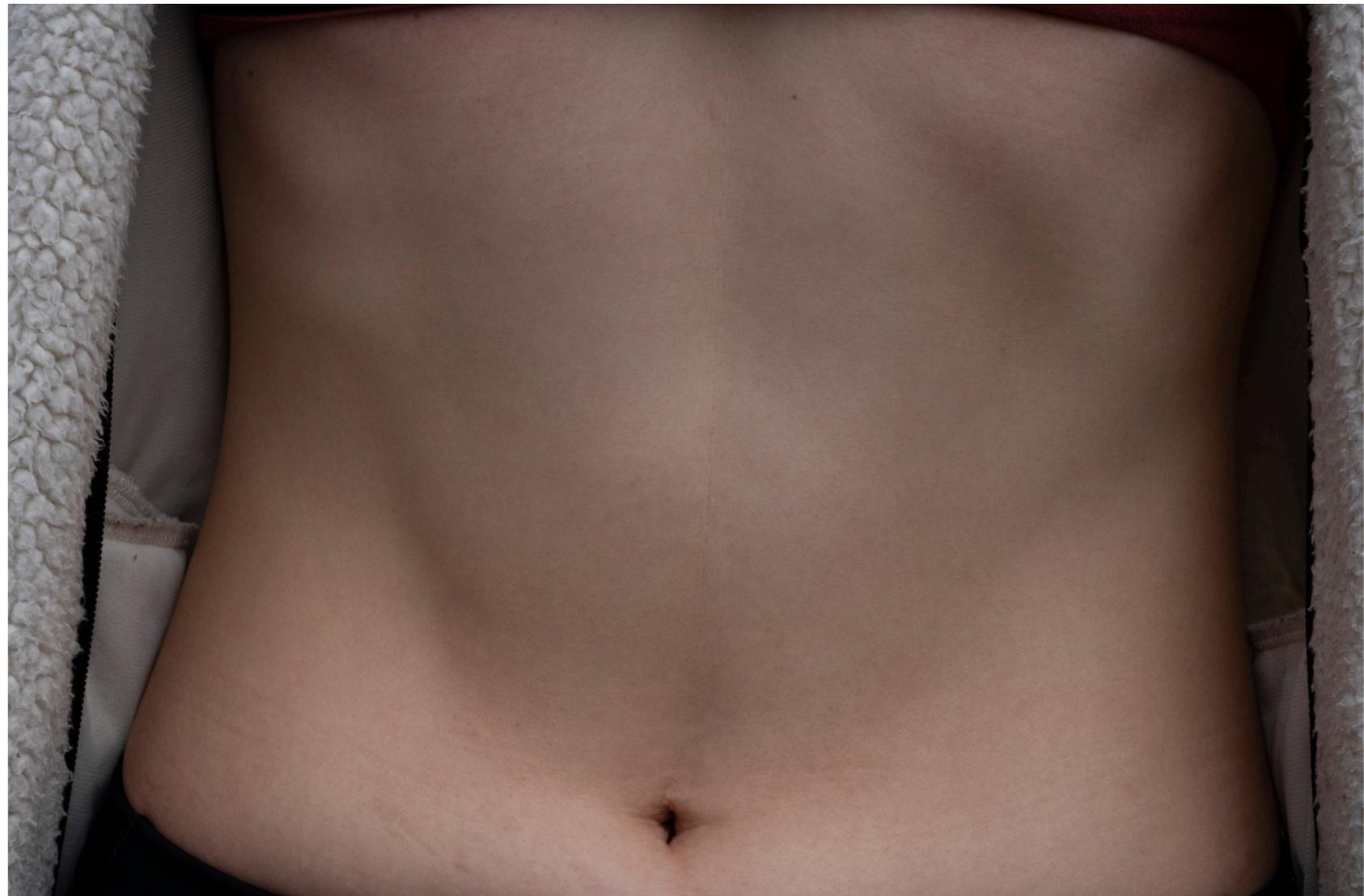














재능보시와 복음을 전하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속담처럼

## 박광수

### 학력

2002.2 상명대학원 예술 디자인학과 예술. 사진석사

### 주요 연구(논문, 저서 등)

2002.2 논문 黑白인화지 水洗에 대한연구黑白인화지 水洗에 대한연구

2007.5 저서 특수사진 인화기법

2008.8 저서 충남연수원 교재, 디지털 사진

### 주요 작품 전시

프랙탈 패턴 사진전

젊은 사진가모임“성과물의접근

Silver Photo Exhibition 10주년「해체」

98영상의해 “천인의 사진가전”

또 다른 만남

### 교육 및 학회봉사 활동

사진학회

어제  
오늘... 미래

*Park Kwang Soo*